

발행인: 이예식
편집인: 홍문표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09년 11월 16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홍문표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94
e-mail: skkhmp@skku.edu

1. 월례 논문발표회

이번 달에도 기존의 기획논문과 일반논문 발표 이외에 분야별 FISA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특강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모임에서는 최혜원(이화여대) 선생님께서 “Probabilistic Syntax”에 대한 FISA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유원호(서강대) 선생님의 기획논문 발표와 김동성(한국외대) 선생님 및 황주현(성균관대) 선생님의 일반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학기와는 달리 장소가 대우재단 빌딩 8층 2세미나실에서 1세미나실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월례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정 연구이사(hanjung@skku.edu)나 홍문표 총무이사(skkhmp@skku.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언어와 정보]에 실을 원고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사용 논문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꼭 논문 요약물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외 논문의 스타일은 학회 홈페이지(<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617-716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산 69-1 동서대학교 영어학과 정찬 교수 (cchung@dongseo.ac.kr)
-------	---

-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심사료: 30,000원
논문 게재료: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00,000원)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00,000원)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50,000원)
- ▶ 논문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원고 제출에 관해 의논하시려면 편집위원장인 정찬 교수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2009년도 연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들께서는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 ▶ 연회비는 월례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다음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64-025835 (예금주: 김정임)

* 기존의 우체국 계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학술행사안내

- ▶ 제 6회 언어중립적 온톨로지 워크숍

- 일자: 2009.11.27~2009.11.28
- 장소: 대전 KISTI 국제회의실 (1층본관)
-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SSLI(European Summer School of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2010

- 일자: 2010.8.9~2010.8.20
- 장소: 덴마크, 코펜하겐
- URL: esslli2010cph.info

한국언어정보학회 2009학년도 2학기 월례회 일정표

장소: 대우재단 8층 1실 시간: 9:30-13:00

날짜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9/26 (토)	09:30 10:20	기획	오치성 (건국대)	-I/-ka in Presupposed Subordinate Clauses in Korean	윤영은 (이화여대)	
	Coffee Break (20분)					
	10:40 11:40	*FISA 특강	김종복 (경희대)	언어학이론과 문법공학의 만남: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20분)					
	12:00 12:30	일반	김두식 (경상대)	Contrastiveness Effects and <i>It</i> -Clefts in English		
12:30 13:00	일반	최인철, 김정임 (경북대)	English Relative Clauses and the Accessibility Hierarch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1/21 (토)	09:30 10:20	기획	유원호 (서강대)	Corpus Linguistics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전종섭 (한국외대)	
	Coffee Break (20분)					
	10:40 11:40	FISA 특강	최혜원 (이화여대)	Probabilistic Syntax: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20분)					
	12:00 12:30	일반	김동성 (한국외대)	유한 순환 네트워크를 활용한 음운 처리		
12:30 13:00	일반	황주현 (성균관대)	The Issue on the Negativity of Negative Sensitive Items			
12/12 (토)	09:30 10:20	기획	이정민 (서울대)	척도 함축을 다시 찾아: 대조화제 표지 '-는'과 양보사 '-도'의 체계적 관계 및 '-만'의 문제	TBA	
	Coffee Break (20분)					
	10:40 11:40	FISA 특강	김지혜 (성균관대)	First Language Attrition and Heritage Speakers: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20분)					
	12:00 12:30	일반	홍승진 (서강대)	A Metapragmatic Analysis of Korean Honorific Markers, <i>-eyo</i> , <i>-ciyo</i> and <i>-pnita</i>		
12:30 13:00	일반	최영주 (조선대)	A Macroparametric Approach to Korean Fragments			

*FISA 특강시리즈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한국언어정보학회 2009년 11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기획 논문>

Corpus Linguistics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유 원호 (서강대)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the word *corpus* has become the buzzword in many areas of linguistics and language education. A great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are corpus-based, and many grammars and ESL/EFL textbooks rely on corpora for authentic examples. After a brief discussion of the nature of corpus linguistics, i.e. whether it is a mere methodology or a separate paradigm, as well as the field's development over the last 40 years,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how corpora can inform language pedagogy by examining in detail one area that poses the greatest challenge to both teachers and learners of English: the definite article *the*.

Of all the areas of grammar, perhaps no other area has been more elusive of exact formulation than the definite article: scholars do not agree on what constitutes definiteness, and teachers do not agree on what should be taught, if *the* is to be taught at all.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corpus linguistics, native speakers' intuitions on how language works have often been proven wrong, calling into question whether what we teach in the classroom reflects what people actually do in the real world. To ascertain whether what students learn is informed by what scholars say in the literature and supported by what corpus findings actually show, the presentation will provide a comparison of the literature on the English definite article, popular ESL/EFL grammars, and corpus findings on definite article usage.

<FISA 특강>

Probabilistic Syntax: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최 혜원 (이화여대)

Whether language is discrete and qualitative or continuous and quantitative is an issue of controversy. While Sapir (1921) noted early on that "everyone knows that language is variable," the idea that linguistics should keep to a categorical base has a long tradition, even preceding modern generative grammar.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science, however, reveals that language, as part of human cognition, has a probabilistic nature involving probabilistic reasoning, ambiguity, underspecification, etc. (Manning 2003). Linguistic knowledge seems to be much richer than all-or-non, deterministic rules of grammar can capture (Johnson 2008). Recently, new development of computing and modeling technology enables us to collect and analyze massive-scale language data and propose a more fine-grained and powerful model of grammar that predicts how likely a structure is rather than simply judging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In this presentation, I'll overview the short history of probabilistic syntax, and present, as an example, a generalized linear model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mixed effects), which is the most recent and sophisticated model available, for an analysis of dative ordering alternation in Korean.

<일반 논문>

유한 순환 네트워크를 활용한 음운 처리

김 동성 (한국외대)

Karttunen (1993)은 전산적 음운처리에서 유한 상태 오토마타를 활용한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Chomsky and Halle (1968)에서 제시한 고전적 음운론은 음운규칙의 생성력을 문맥정보가 명시된 다시쓰기 규칙으로 나타내고, 다시쓰기 규칙 형태의 여러 음운규칙들이 음운처리의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고 있는 형태이다. Johnson (1972)은 다시쓰기 규칙 형태의 음운규칙들의 생성력이 정규언어 관계로 계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로 Karttunen (1993)의 주장과 같이 유한 상태 변환기의 형식이 다시쓰기 규칙 형태의 음운처리의 입출력과 같으며, 푸쉬다운 오토마타나 튜링기계와 같은 다른 형태의 오토마타는 음운규칙을 표현할 수 없다고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 상태 오토마타가 가장 적절한 음운론적 계산 모델이라는 Karttunen (1993)의 주장과 다르게 푸쉬다운 오토마타 형식과 유사한 유한 순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음절구조를 다루기 위한 음절음 유한 상태 오토마타를 설정하고, 하위에 음운자질이 처리되는 다른 유한 상태 오토마타를 설정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오토마타가 순환적으로 처리되는 유한 순환 네트워크 방식은 음운론의 이론적 연구와 계산이론적 측면에서 모두 타당하다.

이론적으로 선형이론과 달리 비선형이론은 음운론에서 구조적 층위를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단위를 구분한다. 또한 최적성이론에서는 단어의 형태론적 입출력을 결정하는 충실성과 음운자질의 변화를 통한 음운변화를 다루는 유효성의 원리를 구분하고 있다. 계산이론적으로 Bird and Ellison (1994)에서는 자립분절음론에서 제시한 초분절음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른 층위의 유한 상태 오토마타를 설정하고, 오토마타 간의 합성을 제안한다. Gildea and Jurafsky (1996)에서는 충실성의 원리에 적합한 방식과 음운자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식을 구분한 계산이론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음성상징어인 경우에 음절이나 특정 단위가 중복되는 현상을 다룬다(뽕<->뽕뽕, 동실<->두동실,...). 이 현상은 음절구조의 중복과 더불어 음운탈락과 서로 맞물려 있다(김형수 2003). 음운처리를 위한 오토마타는 음절단위를 결정하고, 음운자질과 연관된 규칙은 음절의 삭제나 삽입을 위한 음운자질 규칙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유한 상태 오토마타가 활용되는데, 하나는 음절구조를 결정하는 처리단위가 되고 다른 하나는 음절자질을 통한 음운의 탈락과 삽입 규칙을 처리하는 단위가 된다.

The Issue on the Negativity of Negative Sensitive Items

황 주현 (성균관대)

Along the idea that not all Negative Sensitive Items (NSIs) - a group of expressions which is sensitive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negation - cannot be uniformly classified as traditional Negative Polarity Items (NPIs)(Labov 1972, Ladusaw 1992, Laka 1990, Giannakidou 2000, 2006, Haegeman and Zanuttini 1996, Quer 1993, Progovac 1998, Vallduví 1994), Kim (2000, 2006) and Watanabe (2004) propose that NSIs in Korean are better viewed as Negative Concord Items (NCIs). This line of reasoning is based on the fact that Korean NSIs successfully pass several diagnostic tests designed to draw syntactic and semantic distinctions between NPIs and NCIs employ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Among several diagnostics, the ability of NCIs to appear as a fragment answer triggers the issue of the negativity of Korean NCIs. Contrary to Kim (2000, 2006) and Watanabe (2004), arguing in favor of the analysis of Korean NCIs as inherently negative just like negative quantifiers, I claim that NCIs in Korean should not be construed as inherently negative, and they need contentful negation to be licensed. Accordingly the ability of an NCI to appear as an ellided form without the presence of a negative licenser should be considered as a matter of ellipsis. in support of Giannakidou (2000, 2006). The main argument will be strengthened by the fact that Korean NCIs do not express negative meaning themselves, and that double negation readings are not allowed no matter how many NCIs occur simultaneously.

